

LEADER STORY

Awana Family

목동제일교회 김오택교사

영원한 어와나 인을 꿈꾸며....

2007년 초등1부 전도사님이 한 제의하셨다. 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교사 단기대학에 참여해 보라는 의견이었다. 교사는 부담스러웠으나 교사 단기대학은 참여하였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시점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은 나에게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요즘 세대에서 꼭 필요한 교회프로그램이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주었다. 특히 게임에 대해 흥미가 느껴졌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던 게임지도에 대한 재능을 발휘하여 2년 동안은 거의 매주 게임을 진행하였다. 힘은 들었지만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대외적으로는 4년째 어와나 게임즈에 참여하여 심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내 아이들은 초등1부와 유치부에서 불티단과 커비단에서 열심히 어와나를 하고 있다. 아내는 2년여에 걸쳐 유치부에서 커비단 교사로서 활동하였다. 토요일에는 초등학교 반별 생일파티를 교회에 와서 어와나 게임으로 진행하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다.

나는 어와나가 좋다. 초기에는 말씀을 외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20여 개를 장 단위로 외우고, 배지를 받는 재미에 흠뻑 젖기도 했다. 말씀을 외워서인지 기도도 잘되고 삶이 훨씬 풍요로웠던 것 같다. 어와나는 나에게 많은 의미를 주었으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와나는 남다르다. 첫째 유빈이는 각종 시상품과 함께 초등1부에서는 처음으로 불티단 핸드북을 완성하여 핸드북 완성패를 받아 성취감을 느꼈으며, 둘째 아이도 커비단 표식을 붙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금의 단계까지 오기에는 아내의 노력이 남달랐다. 아내는 평소엔 말씀 외우기를 강조하였고, 매주 토요일에는 확인하였다. 교회와 부모와 아이들이 조화를 이루어 노력할 때 어와나는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와나를 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다. 나의 잠재성을 보고 이끌어준 목동제일교회 초등1부 임금자 전도사님과 여러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나의 손을 거쳐 간 아이들, 몰라보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삶의 보람을 느낀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유빈, 서정이 너무나 잘 자라주어 고맙고 감사한다. 평생 어와나 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어와나와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추억이었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추억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서....
김오택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 유빈, 서정



Hoping for being in AWANA at all times

In 2007, I was offered to be an AWANA leader. I thought AWANA program was necessary for kids who are growing further apart from church nowadays. Especially, AWANA games attracted my interest and awakened my latent talent for games referee. For 2 years, I used to handle AWANA games almost every week. It was not easy but very pleasant moments at the same time. I have participated in games as a referee for 4 years.

My two kids have participated in Cubbies and Sparks, and they enjoy it very much. My wife also took a part as a leader in Cubbies for 2 years.

I love AWANA. In early days, I had so much fun memorizing verses that I learned about 20 verses at one sitting. It helped in focusing to praying more and made my life rich much more. AWANA means a great deal to me. It motivated to develop many talents God gave to me.

AWANA is special for my kids as well. They are enthusiastic pretty much about learning handbook, and they are very proud of Sparky Award Plaque and patches. My wife has been dedicated to help children to do the best in AWANA. She encouraged them to learn verses at home as well and checked their work on every Saturday. I believe that Awana will have come to beautiful fruition with harmony of church, parents and kids.

I have a lot of thankful things with Awana. I thank to Pastor Lim who saw my potential and lead to Awana. When I see the children who are passed Awana, I feel rewarded. And also I thank to my family. I want to live Awana-man forever.

December 2010.
Oh Taek Kim with wife,
and loving kids Yubin and Seojung

Awana 영작 : 장혜은 기자